작년 온라인 역직구 증가율 '급락'

중국 사드보복이 큰 영향… 해외 직구 시장 증가율 확대 지난해 2저 2436억원 전년보다 17.6% 증가

연간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 증가율이 급격이 하락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역직구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로 풀이된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은 2조9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7% 증가했다.

해외 직접판매액이 30% 가량 증가한 것이지만 2016년과 2015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5년 해외 직접판매액은 1조2599억원으로 전년 대비 85.5% 증가했다. 2016년에는 2조2934억원으로 82.0% 늘었다. 2년 연속 8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다가, 지난해에는 20% 수준으로 뚝 떨어진 셈이다.

대중국 해외 직접판매가 예년만큼 확대되지 못한 결과다.

손은락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사드 영향이 있었다. 해외 직접판매액에서 중국의 비중은 78.3%에 이르는데, 사드 영향으로 예전만큼 증가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전체 해외 직접판매 증가율도 2015년과 2016년에 비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 해외 직접판매액은 2조31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0% 늘었다. 하지만 2015년에는 170.3%, 2016년에는 107.9% 증가했다. 2년 연속 100%를 상회하다 지난해 20%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손 과장은 "지난해 중국 관광객은 전년에 비해 55.1% 감소했다"면서 "중국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도 해외 직접판매지만, 관광객이 국내에서 모바일 등으로 주문한 뒤 가져가는 것도 해외 직접판매에 포함된다. 관광객이 절반 이상 줄다보니 해외 직접판매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반면 해외 직구 시장은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확대됐다.

지난해 해외 직접구매액은 2조243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6% 증가했다. 2015년 3.3%, 2016년 12.1%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늘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가 1조286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일본이 61.1%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48.2%로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78조22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4년 45조3024억원, 2015년 54조556억원, 2016년 65조6170억원 등으로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온라인 쇼핑의 성장 중심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엄지족'이 있다. 지난해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47조83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4.6% 늘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에서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6.0% ▲2016년 54.2% ▲2017년 61.2%로 상승했다. /뉴시스

전북은행, 전주시에 500만원 상당 선물꾸러미 전달

전북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500만원 상당의 이웃사랑 선물꾸러미를 전주시에 지난 2일 전달했다.

선물꾸러미 전달은 사랑중심 '따뜻한 금융' 실현을 위해 은행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소외계층 지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기탁 받은 밀가루와 식용유 등 200여개 선물꾸러미를 저소득층 소외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 지역은행으로써 역할과 사명을 다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상용 세정과장은 "설맞이 이웃돕기에 동참해 주신 전북은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많은 기업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설 명절 따뜻한 밥상 떡국 나눔 행사, 다문화가정 온가족 친정나들이 행사, JB희망의 공부방 오픈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채규남 기자

농업인 한방 무료진료 큰 호응

부안농협, 침 · 뜸 · 부황 등 시술 약품 처방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방 무료진료를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5일 동안 부안 농협 2층 회의실에서 실시 관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 농협은 올해로 10회 째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 무료진료에는 경희대학교 한의대 이진무교수를 비롯한 한방의료봉사단 녹수회 회원 40여 명이 겨울방학을 맞아 재학생들과 함께 5일 간 강추위와 기후가 고르지 않은 가운데도 850여 명의 농업인들이 무료 한방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방 무료진료는 개별 건강검진과 내과계열(소화기계통, 순환기계통, 호흡기계통, 비뇨생식기 계통) 부인과계열(순환기계통, 신경계통, 갱년기장애)로 구분하여 진료하였고 증세에 따라 침, 뜸, 부황 등 시술하였고 증상에 따라 약품 처방을 받았다.

진료를 받은 이두희 조합원(64세 백산면 금판리)은 "농협에서 농업인들에게 한방 무료진료를 해줘 정말 고맙다"며"옛날부터 어깨가 아팠는데 농번기가 끝나고 조금 한가하니 온몸이 아파 침을 맞고 나니 한결 부드러움을 느낀다"며 "방학기간에도 봉사하는 한의대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안 농협 김원철 조합장은 "항상 여름철 농한기에 한방진료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편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기위해 겨울철에 한방진료를 실시하였다" 며 "복지사업의 사각지대인 농촌지역에서 부안 농협이 틈새문화·복지사업을 선도적으로 전개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쓰겠다" 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현대차, 설맞이 귀향 지원 6박7일 무상렌탈 이벤트

현대자동차는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현대차를 무료로 시승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설 연휴 귀향 지원 6박 7일 렌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는 매 명절마다 고객들의 편안한 귀향 길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렌탈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아이오닉, 코나, i30, 쏘나타, 투싼, 맥스크루즈 등 200대와 제네시스 G70 130대를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6박7일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만 21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현대차 및 제네시스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2일부터 8일까지 응모 가능하다. 당첨자는 12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가 설 연휴를 맞이해 6박7일의 무상 차량 렌탈 이벤트를 마련했다. 승용차부터 레저용 차량(RV)까지 고객의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승차를 준비했으니 고객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파에 채소류 · 과일류 가격 상승세

이어진 한파와 눈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의 가격이 상승세다. 과일류도 설 명절을 앞두고 전문상인들이 물량확보에 들어가면서 시장 내 반입감소로 가격이 올랐다.

2일 한국물가협회 1월 마지막주 생활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채소류 중 감자·오이·풋고추 등은 반입감소로 상승세다. 마늘은 반입증가로 하락세에 거래됐다. 축산물류 중 닭고기는 AI 확산 여파로 시중 소비가 한산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수산물 중 갈치는 한파로 시장 내 반입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했다.

전체 조사대상 73품목 중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쇠고기·감자·양파·사과 등 12품목이 상승세, 돼지고기·마늘·상추 등 5품목은 하락세를 보였다.

닭고기는 조류독감(AI) 확산 여파로 시중 소비가 한산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생닭 한 마리(1kg)당 부산·대구·대전에서 8%·6.2%·9.1% 내린 4580원·4220원·5000원에 거래됐다. 서울·광주는 4910원·4990원으로 강보합세에 판매됐다.

갈치는 한파로 시장 내 반입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부산·대전에서 마리당 4.8%·6.1% 오른 8480원·8380원에 거래됐고 서울·대구·광주는 각각 8490원씩에 판매되면서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뉴시스

전통시장 설 성수품 구입비 대형마트보다 11만원 저렴

시장 24만9천원 0.1% ↑ · 마트 35만8천원 0.5% ↑

설 명절을 2주 앞둔 올해 설 차례상 구입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1만원 가량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성수품 구입 비용은 전통시장 24만8935원, 대형마트 35만7773원이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10만8838원 더 싼 셈이다.

이는 전국 19개 시·도 전통시장 18곳과 대형마트 2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전주 대비로는 전통시장 0.1%, 대형마트 0.5% 각각 올랐다. 최근 한파와 강설로 출하 작업이 원활하지 않았던 탓이다. 특히 쌀이 출하 물량 감소로 전주보다 0.6%나 가격이 뛰었다.

품목별로는 소고기, 계란, 배, 대추, 곶감, 나물류(시금치·고사리·도라지), 과자류(다식·강정·약과·산자) 등 20개 품목은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유리했다.

반면 밤, 사과, 밀가루, 청주 등 8개 품목은 대형마트가 더 저렴했다.

또 농협유통과 대형마트 3사는 5만~10만원 가격대의 농식품 선물세트 물량을 1년 전보다 20% 이상 늘릴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세트 품목별 가격을 보면 사과 5kg(16과) 5만2000원, 배 7.5kg(13과) 5만4000원, 곶감 1.5kg(40개) 5만4000원, 표고버섯 420g 8만2000원, 잣 500g 5만8000원, 굴비 1.2kg(10마리) 16만2000원, 한우갈비 1등급 이상 3.0kg 27만6000원 등이었다.

aT는 오는 8일 설 성수품 구입비용과 선물세트 가격 등의 분석 정보를 한 차례 더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